



색소폰 수리 전문점 '빅벨' 악기' 최 영 진 씨

"색소폰 연주자들의 사랑방 만들고 싶다"

최근 들어 눈에 띠는 흐름 중 하나가 아마추어 색소폰 연주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50~60대 남성들 사이에서 색소폰 연주가 하나의 '로망'으로 자리잡으면서 주변에서도 색소폰의 매력에 빠진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건너편에 문을 연 '빅벨(Big Bell) 악기'는 색소폰 연주자들에게 반가운 공간이다.

최영진(52)씨가 지난 9월 오픈한 이 공간은 색소폰 전문 수리점이다. 악기 커디션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연주하고 싶은 모든 연주자들의 바람, 하지만 지금까지 광주에서는 몇몇 악기상에서 색소폰 수리를 해왔고, 대부분 서울에 수리를 맡겨왔던 터라 악기 고치는 게 수월치 않았다.

매서운 바람이 불던 지난 24일, 이런 저런 공구와 기계들이 놓여 있고 작은 공구상처럼 보이는 가게 안에서는 주인장 최씨와 한 고객이 색소폰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이리 저리 소리를 내보는 고객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씨가 즉각 즉각 다른 쳐방을 내

놓으며 수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악기 수리하는 것도 병원에서 문진(問診)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이 문제점 등을 가장 잘 알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점을 파악해 고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수리를 맡기면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없죠."

4년 전부터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한 최씨가 수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3년전. 악기가 고장 나 3번 정도 수리를 맡겼지만 그래도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자 악기를 '직접' 뜯어본 게 계기였다. 어릴 때부터 손제주가 좋았고, KT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그의 호기심이 제대로 작동한 셈이다.

하지만 악기 수리를 가르치는 학교나 체계적인 학습 코스가 없어 이를 막았다. 악기를 분해하여 독학으로 공부를 하고, 색소폰 리페어 온라인 포럼에서 궁금증을 풀어나갔다. 서울의 유명 수리점에 사정사정 해 6개월 동안 일을 하며 세부적인 것을 배워나갔고, 미국 뉴올리언스 수리점 견학 등을 통해, 귀한 경험을 했다.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 '음악사랑' 회원들이 악기를 고쳐주며 경험을 쌓은 최씨는 지난 9월 수리점 문을 열었다. 간판을 직접 만들고 가게 인테리어도 직접 했다. 각종 부품은 해외에서 직거래로 구

일반 연주자들 위한 '색소폰 메뉴얼' 집필중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무료 접경 봉사활동

입하고 있고 수리에 필요한 공구도 직접 만든다.

연주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가게 안에는 1920년대 빈티지 색소폰 등 수십대의 악기들이 최씨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악기를 고치다 보면 밤 12시는 금방이다. 최씨는 아직 노하우가 많이 쌓인 것은 아니라며 겸손해했다.

"요즘 악기들은 표준화가 되어 있어 고치기 쉽지만 오래된 빈티지 악기는 고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악기들을 고치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어 행복하죠."

최씨는 요즘 '최영진의 색소폰 메뉴얼'을 집필중이다. 일반 연주자들에게 친절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색소폰 고르는 법, 소리 매커니즘, 리페어 공구만드는 법 등을 수록할 예정이다.

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색소폰 동호회 회원들을 위해 한달에 한번씩 무료 접경 봉사 활동을 하고 있

는 최씨는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마추어 색소폰 연주자들의 사랑방'을 만들고 싶다는 최씨의 꿈은 벌써 이루어진 듯하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안경행(67)씨는 "악기만 맡겨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수리하는 것도 지켜보고 악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니 즐겁다"며 "색소폰 연주자들에게는 진짜 귀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돈보다 사람 만나 음악 이야기하고, 악기 이야기하고, 사는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 오시니까 참 행복해요."

매일 오전 9시30분에 문을 열고 악기를 고치다 보면 문 닫는 시간은 일정치 않다. 일요일은 쉰다. 문의 062-227-10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최영진씨는 '빅벨 악기'가 색소폰 연주자들의 사랑방이 되기를 꿈꾼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맑고 깨끗한 색채 겨울을 물들인다

31일까지 '수채화작가 초대전'

눈꽃처럼 투명한 수채화가 겨울을
곱게 물들인다.

광주·전남수채화협회(회장 김효삼)는 오는 31일까지 광주 대동갤러리에서 '대한민국 수채화 정예작가 초대전'을 연다.

광주·전남수채화협회 회원과 전국 유명 수채화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고광복·김규창·김복동·김상백·나원찬·박근

준·박찬호·부상철·소훈·심우체·전호·조진호·김종안·김희남·류신·전병문·한부철씨 등이 참여한다.

조진호씨는 글자 향(香)자와 매화를 함께 그려넣어 냄새를 입체적으로 표현했고, 김수옥씨는 활짝 핀 꽃봉오리의 자태를 선사한다.

또 김종안씨는 꽃과 파란 하늘, 흘날리는 꽃잎을 안정적인 구도로 선보이고, 전병문씨는 가을이 깊어가는 강변 풍경을 형상화했다. 문의 062-222-0072.

/오히려기자 kroh@kwangju.co.kr



김효삼 작 '햇살 좋은 날'

현대와 전통의 어울림 '연의 노래'

30일 임지형광주무용단·김미숙뿌리무용단 합동공연

을 한해 김미숙 뿌리한국무용단과 임지형 광주현대무용단은 광주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공모한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에 선정돼 각각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30일 오후 7시 광주남구문화회관 무대에 올리는 '연의 노래'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이라는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는 두 단체가 어울려 만들 어내는 아름다운 몸짓이다.

'연의 노래'는 눈먼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빠져 죽은 설화 속 주인공 심청이 테마다. 하지만 고전적 의미의 심청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상징을 곁들여 새로운 캐릭터를 창출해 내며 현대

적 의미에서의 '심청'을 표현해 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심청의 모습 말이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흐름과 몸짓으로 춤을 추는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이 함께 어우러진 작품이라는 점에서 광주에서는 색다른 시도이자 많은 고민이 뒤따르는 도전이고 그 만큼 의미있는 작업이다.

작품에는 두 무용단을 대표하는 무용수들이 총출동한다. 강렬한 몸짓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현대무용단의 대표 무용수 김미선이 심청으로 출연하며 유길호(심봉사), 현명선(빵덕여암)씨 등 40여명이 단원이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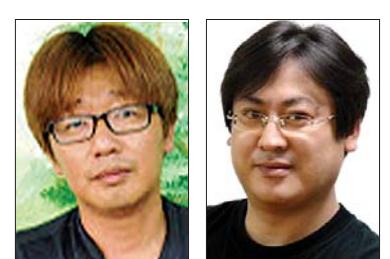
광주연극인상 양태훈·원광연씨 수상

광주연극협회(회장 최영화)가 수여하는 2010년 광주연극인상 수상자로 양태훈·원광연씨가 선정됐다.

극단 얼·아리 대표를 맡고 있는 양태훈(41)씨는 연출과 희곡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고마나루 전국 향토연극제에서 '매콤 삽니다'로 대상을 수상했다.

극단 원아트 컵퍼니를 이끌고 있는 원광연(40)씨 역시 희곡 집필과 연출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연극인이다.

지난 2005년과 2010년 광주연극제에서 희곡상을 수상했으며 희곡집



〈양태훈〉 〈원광연〉

'장자의 꿈'을 출간했다.

시상식은 27일 열린 광주연극인의 밤에서 진행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해링 展

KEITH HARING



광주시립미술관 2010. 12. 8~2011. 2. 27

한정식 전문 레스토랑

아리랑하우스에서 맛있는 떡국 드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큰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세심한 서비스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날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난 해 부족했던 점을 채워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출풀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문화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 www.geumsc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하남점	
1관	쓰리데이즈 (15세)	1관	나니아연대기 (전체)/헬로우 고스트 (12세)
2관	제페한 로맨스 (18세)/김종욱 찾기 (12세)	2관	황해 (18세)
3관	황해 (18세)	3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 (전체)
4관	황해 (18세)	4관	황해 (18세)/세미의어드벤처 (전체)
5관	나니아연대기 (전체)/투어리스트 (15세)	5관	쓰리데이즈 (15세)
6관	황해 (18세)/세미의어드벤처 (전체)	6관	헬로우 고스트 (12세)
7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 (전체)	7관	제페한 로맨스 (18세)/김종욱 찾기 (12세)
8관	세미의어드벤처 (전체)/헬로우 고스트 (12세)	8관	투어리스트 (15세)/세미의어드벤처 (전체)
9관	헬로우 고스트 (12세)	9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 (전체)
10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 (전체)	10관	황해 (18세)

영화보기!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상급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 런던 악극사거리
☎ 1544 - 0600

M관	황해 (18세)	최고급관
2관	헬로우 고스트 (12세)	
3관	김종욱 찾기 (12세)	
4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 (전체)	
5관	헬로우 고스트 (12세)	
6관	제페한 로맨스 (18세)	
7관	쓰리데이즈 (15세)	
8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 (전체)	
9관	나니아연대기·세 백작정호의 황해 (전체)	
	황해 (18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의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